

개교 목표까지 3년...빠듯한 시간 과제는 산적

광주·전남 긴급 현안 진단

<1> 한전공대 개교 문제 없나

의회 동의·기본계획 수립·예타 여부 등 '산 넘어 산' 한전 적자 부담...2022년 신입생 모집 빨간불 우려도 "대통령 공약사업, 정부 행·재정적 지원안 서둘러야"

광주·전남의 최대 관심사인 한전공대 설립의 첫 단추격인 지자체와 한전 간 실시협약이 임박하면서 사업의 순항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 한전은 애초 목표인 2022년 3월 개교를 위해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하고 있지만, 막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 특별법 제정, 한전의 적자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찮은 상황이다.

지역사회에서는 한전공대가 본래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만큼 대학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안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전공대는 지난 2017년 1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나주혁신도시를 방문, 설립을 제안하면서 부상했고, 같은 해 7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채택돼 구체화 됐다. 이후 한전의 건설링 용역사 선정과 국가균형위의 설립 기본협약서 체결 등을 거쳐

지난 1월 나주 부영CC 일원이 설립 부지로 최종 결정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개교 목표는 2022년 3월로, 전남도와 나주시, 한전은 마스터플랜 완성 시기를 앞당기는 등 설립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전공대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변수가 적잖아 기대 보다 우려가 크게 현실이다.

당장 이달 내로 예정된 전남도·나주시·한전 간 실시협약이 불투명해 졌다. 실시협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선행해야 하지만, 전남도와 나주시의 지원금 규모가 2,600억원에 달하면서 재정난을 우려한 양 의회의 동의 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의회는 오는 11일까지 4월 임시회가 진행중이던, 소관 상임위원 경제관광문화위는 신빙성 있는 자료 자체가 없다는 점 등 물리적으로 이번 회기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나주시의회는



광주 대인예술아시아시장 개장

6일 오후 옐해 처음으로 문을 연 광주 대인예술아시아시장에서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전통타악연구회 두드리'가 길놀이판을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나주시가 전남도보다 600억원여이나 더 많은 지원금을 내야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와 한전 간 실시협약 역시 5월 중순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 의회가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기본계획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처리가 더 늦춰질 수 있다. 컨설팅회사 AT

커니가 맡고 있는 용역 최종보고서는 빨라야 이달 말에나 나올 전망이다,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한 기본계획 수립은 7월로 잡혀있다.

용역보고서에는 학과 및 교과체계 등이 담길 예정이어서 보고서와 기본계획 완성이 늦어지면 2022년 개교를 위한 필수절차인 교육부 인가 등 신입생 모집

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도 속도감 있는 추진의 관건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 신규투자 및 출자사업은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전남도는 한전공대가 수익을 전제로 하지 않은 비영리 출연사업이므로 예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설

립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타 조사를 면제받아야 개교 일정을 맞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타 조사가 경제성을 중시하는 만큼 조사 대상이 되면 수익성이 부족한 대학 설립은 통과 자체가 불확실해진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예타 비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현재 법제처 유권해석을 남겨두고 있다.

재정문제 해결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과제로 꼽힌다.

공대설립에만 7,000억원 안팎, 매년 운영비로 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다. 지자체 지원과 별개로 현재 정부의 재정투입 계획은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

전남도는 자유한국당의 반대 등 특별법 제정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 대학설립 절차와 특별법 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는 입장이다.

한전 내부의 반대 기류도 부담이다. 한전은 2018년 영업손실과 이자비용 등 1조1,50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실적반등이 여의치 않으면서 이사회 의결 등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한 상태다.

전남도 관계자는 "한전공대는 광주·전남이 아닌 세계 최고의 에너지특화대학 육성이 목표다"며 "진행중인 마스터플랜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을 최대한 앞당기는 등 의회 동의와 실시협약, 정부 지원을 빠르게 이끌어내 2022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광주수영대회 성공개최 봄 조성할 터"

5·18 마라톤 함께 뛰어요

광주시교육청 마라톤 동호회

"전 교육가족의 염원을 담아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달려겠습니다."

광주시교육청 마라톤 동호회가 5·18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 제19회 5·18마라톤대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광주시교육청은 매년 5·18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며 5월 정신을 되새기며 건강을 다지고 있다.

올해 역시 직원들의 참여와 완주를 통해 남은 수영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5·18의 의미를 되새기겠다는 각오다. 특히 시교육청은 올해 마라톤대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봄 조성하고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광주수영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교사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



광주시교육청 마라톤 동호회원 20여명이 오는 5월 11일 열릴 예정인 제19회 5·18 마라톤대회 참석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천서 주말마다 친목 다져...업무 활력

인 지원활동을 추진 중이다.

광주시교육청 동호회는 매주 주말 오전 광주천 인근에 모여 서로의 실력을 체크한다.

함께하는 아침식사를 통해 친목도 모는 물론 달리기를 통해 업무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이들은 마라톤을 통해 가족간의 사랑도 더하고 있다. /조기철 기자

회원들은 마라톤 이외에도 등산과 야유회 등 행사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있다.

신봉호 광주시교육청 교육자치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활동은 물론 생활 속에서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직원들과 안전하고 즐겁게 달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기철 기자

"한전 나주에 있는데 배구단은 왜 수원에"

광주시, 한전배구단 수원 연고지 협약 규탄

한국전력배구단이 연고지를 수원으로 결정했다. 한전배구단을 광주로 끌어오기 위해 서명운동은 전개하고 이용섭 시장까지 직접 나서서 선수단을 방문하는 등 유치에 안간힘을 기울였던 광주시는 순리에 어긋난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는 7일 한국전력 배구단 연고지가 수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지역

상생발전을 외면한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광주 이전을 요청하고 서명운동 등 큰 노력을 했다"며 "그러나 연고지 협약이 4월 말에 끝나는데도 광주시와 정상적인 협의 절차를 무시한 채 지난 5일 짜인 각본처럼 기습적으로 수원시와 재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이용섭 시장이 경기도 의왕까지 직접 가서 선수들에게 연고지 이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설명하고 돌아온 지 불과 이틀 만에 철저한 보안 속에 전격적으로 단행했다"며 "이는 150만 광주 시민의 열망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과도 배치되며, 본사와 프로팀 동일지역 존치라는 순리에도 어긋난 것이다"고 주장했다. /황애란 기자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사업

사업기간 : 2018년~2021년
위 치 :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일원(19만평 규모)
투자규모 : 약 7,000억원
사업내용 : 민간기업과 공동출자로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
※ 광주광역시, 한대(자동차), 지역기업, 투자자 등이 주주로 참여하는 독립 산생법인

생산차종 : 경UV 신규차종
생산규모 : 10만대 생산라인 구축
고용인원 : 정규직 1,000여명

대한민국 노사상생시대를 이끄는 견인차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내 이름을 부탁해

사회통합형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의 첫걸음인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의 이름을 지어 주세요.

공모
개요

공모일정 : 2019년 4월 1일(월) 9:00 ~ 5월 31일(금) 18:00까지

공모자격 : 누구나(1인 1점 제출)

공모방법 : **광주광역시 공식 홈페이지 접수**(www.gwangju.go.kr)
※ 홈페이지 - 시정소식 - 기타소식 - 팝업게시판(자동차공장 합작법인 명칭 공모)

시상내역 : 최우수상 1명 200만원, 우수상 1명 50만원, 광주시랑상 20명 10만원
※ 당선인이 광주광역시민인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

문의사항 :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과 김동환 062-613-4854

※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